

2026. 10. 제 9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 분야 연구 현황]

서울시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와 정책 과제: 일자리, 사회적 관계,
미래준비를 중심으로(2026)

서울시 청년세대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2025)

서울시 1인가구 유형별 정책수요 분석 및 정책 과제(2024)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은 취업과 창업 중심의 이행 지원에서 주거, 자산형성, 마음건강, 고립·은둔, 사회적 관계, 결혼·출산과 돌봄까지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역시 특정 성별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기보다 노동시장, 안전, 돌봄, 관계, 참여 등 청년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와 제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리뷰는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생애 전망과 정책 요구를 성별, '양성평등 인식 유형', '삶의 조건'을 함께 살펴본다. 잠재프로파일분석으로 도출한 다섯 가지 인식 유형에 따라 일자리, 관계 및 안전, 가족 형성과 관련된 경험 및 정책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면접조사에서 확인된 맥락을 연결하여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조사개요]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2,647명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성·연령 6개 집단
면접조사
- 분석방법: 성·연령 차이, 삶의 조건 차이,
잠재프로파일분석(LPA)
- 주요 영역: 양성평등 인식, 일자리·경력, 사회적
관계, 자립·미래 계획,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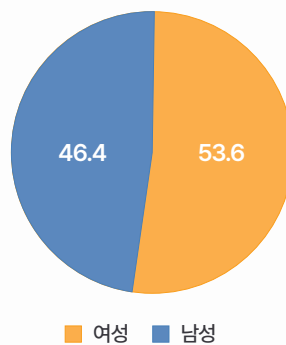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 현황(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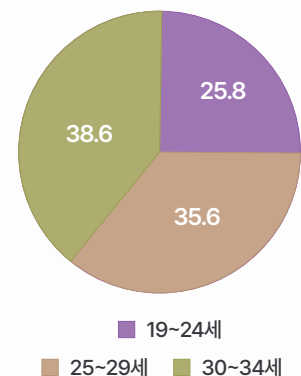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현황(연령집단별)

* 주: 『서울시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와 정책 과제: 일자리, 사회적 관계, 미래 준비를 중심으로』(2026)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양성평등 인식 차이

서울시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은
‘공정중시형’이
주된 비중을 차지함

- 잠재프로파일분석¹⁾ 결과, 서울시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은 공정중시형(40.3%), 성차별민감형(29.9%), 성평등중시형(14.5%), 차별둔감형(8.8%), 역차별민감형(6.4%)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됨.²⁾
- 공정중시형과 성차별민감형을 합하면 전체의 70.2%를 차지함. 이는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이 단일한 입장으로 수렴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각 유형의 세부 인식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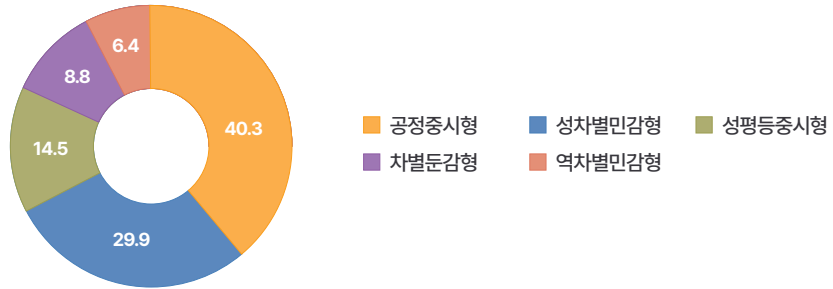


그림 3 양성평등 인식 유형 분포

양성평등 인식
유형과 성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

- 성별은 인식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축이지만 유형을 성별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성평등중시형은 여성 95.6%, 역차별민감형은 남성 94.7%로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반면, 성차별민감형은 여성 73.2%, 남성 26.8%로 구성됨. 이는 동일한 성별 내에서도 인식 유형이 다양하며, 서로 다른 성별 간에도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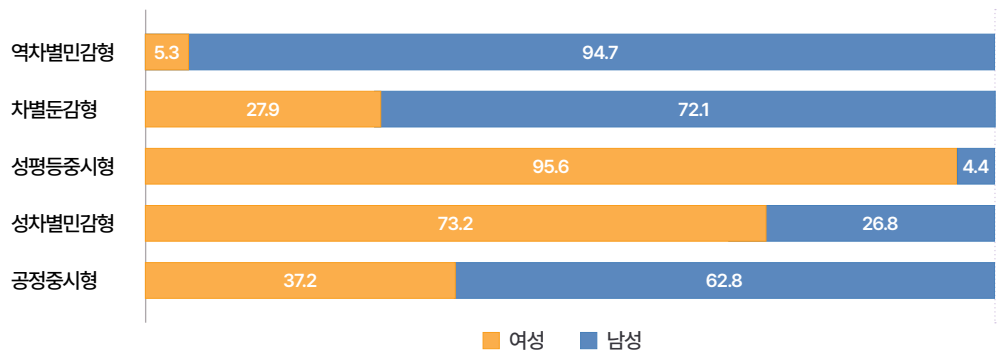


그림 4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 성별 구성

1) 여성이 겪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가정·학교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 차별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젠더 이슈에 대한 회피 태도와 관련된 9개 지표를 기반으로 총 2,647명을 대상으로 LPA를 실시하였음.

2)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구분	특징
공정중시형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과 남성 역차별을 모두 일정 수준 인정하는 집단
성차별민감형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역차별과 성중립적 공정성에 동의하는 집단
성평등중시형	여성 차별과 구조적 성차별,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고 남성 차별에 대한 인식은 낮은 집단
차별둔감형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은 집단
역차별민감형	여성 차별이나 젠더폭력 심각성에는 동의하는 정도가 낮고, 성중립적 공정성이나 남성 차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

청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안정적인 삶'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비율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높은 소득' 20.6%, '일과 삶의 균형'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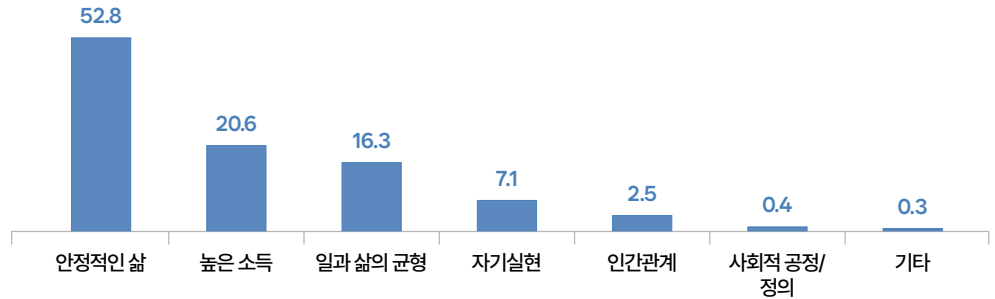


그림 5 현재 삶에서 중요한 가치(전체)

-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요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지만, 미래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조건에는 차이가 있었음.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30대는 경력 지속 가능성과 일·생활 균형을, 남성은 소득과 주거 마련 부담을 주요 문제로 언급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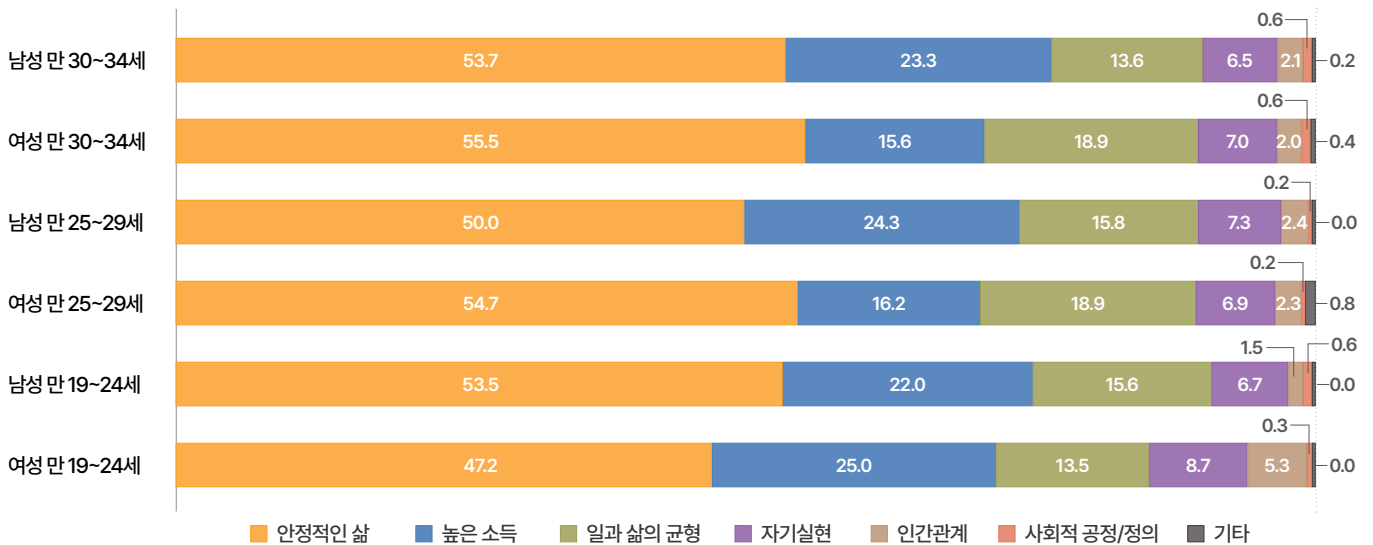


그림 6 현재 삶에서 중요한 가치(성*연령)

-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로 미래 계획 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역을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에서 '일'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42.10~46.97%). '일' 다음으로 '개인생활' 선택 비중이 높은 유형은 성차별민감형, 성평등중시형, 역차별민감형이었으며, '파트너십' 선택 비중이 높은 유형은 공정중시형, 차별둔감형이었음(<표 1> 참조).

표 1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 미래 계획 시 영역별 주요 비율

(단위: %)

구분	일			개인생활			파트너십			자녀/가족		
	m	sd	F	m	sd	F	m	sd	F	m	sd	F
공정중시형 ^a	44.93	25.69		15.28	15.67		18.18	16.49		15.65	16.46	
성차별민감형 ^b	42.10	23.43		18.59	17.26		16.70	15.81		15.97	17.02	
성평등중시형 ^c	46.28	22.09	2.972*	27.38	19.79	37.609***	10.15	15.48	19.456***	10.26	13.42	10.511***
차별둔감형 ^d	45.84	27.51		14.48	15.10		16.75	16.09		14.54	15.44	
역차별민감형 ^e	46.97	29.61		20.09	24.18		13.35	14.84		12.20	15.63	

주 1) *p<.05, **p<.01, ***p<.001

2) 통계량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3) 범위는 1~100임

4) '학업', '기타' 영역의 차이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아 표에서 제외하고 제시하였음

영역별 생애 전망 ① 일자리

‘일’은 청년의 미래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청년이 미래 계획에서 배분한 중요도는 ‘일’이 44.5%로 가장 높았고, ‘개인생활’ 18.3%, ‘파트너십’ 16.1%, ‘자녀·가족’ 14.6%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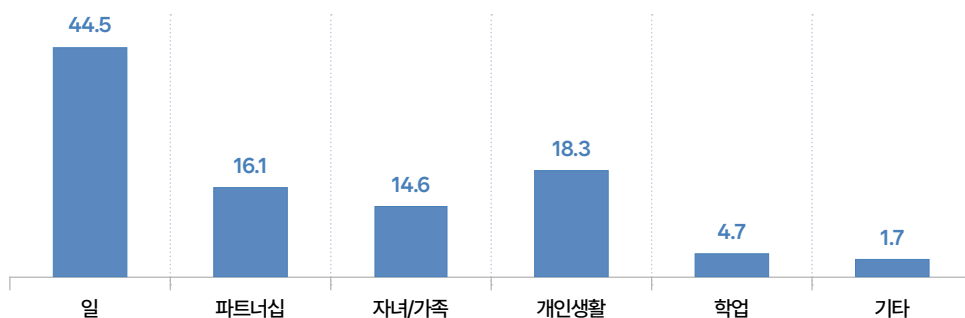


그림 7 미래 계획 시 영역별 중요 비율(전체)

-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개인생활을, 남성은 파트너십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차이를 보임. 특히 여성 30~34세는 개인생활 비중이 20.8%로 가장 높았고, 남성 25~29세는 일의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았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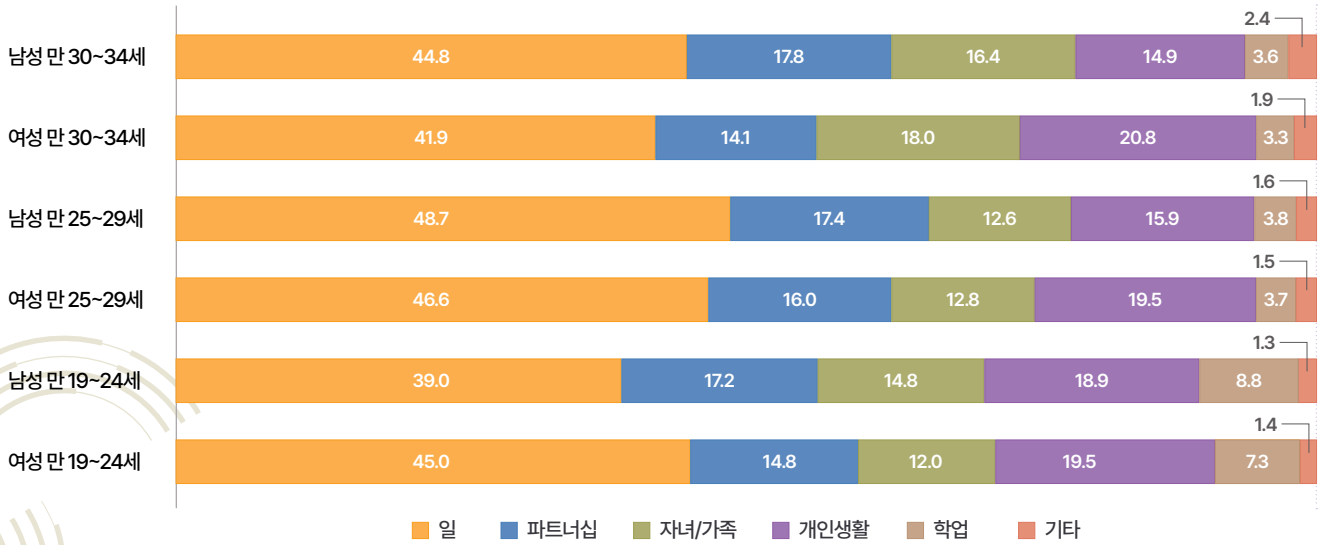


그림 8 미래 계획 시 영역별 중요 비율(성*연령)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 일자리 영역 수요와 정책 방향

- 모든 인식 유형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요구는 '청년 취업 확대'로 나타남. 다만 일자리에서 경험하는 성별화된 부담과 이에 따른 정책 요구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음.
- 면접조사 결과 여성의 비중이 높은 성평등중시형에서는 임금·평가·교육 기회 등의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된 점을 고려하여, 채용·배치·평가·승진 과정의 공정성과 경력 유지·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남성의 비중이 높은 역차별민감형에서는 신체적으로 힘든 업무의 집중이나 성별에 따른 기회 배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됨. 이를 고려하여 업무 배치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역할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자리 정책은 여성의 경력 유지 문제나 남성이 인식하는 역차별 문제 중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정한 노동조건과 성별에 따른 역할 부담 완화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2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 일자리 관련 경험과 인식 특성

유형	주요 경험과 인식	정책 방향
성평등중시형 (여성 중심)	임금차별, 외모 및 행동 준수 요구, 승진·평가·교육 배제,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	채용·배치·평가·승진의 공정성, 여성 경력 유지·성장
성차별민감형	구조적 성차별 및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건처리 실효성에 민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예방 및 처리체계 강화
공정중시형· 차별둔감형	보편적 제도와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일·생활균형 제도의 실질적인 이용 여건 개선
역차별민감형 (남성 중심)	신체적으로 힘든 업무 집중, 성별로 인한 기회 배제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	업무배치 기준의 투명성, 성별 역할 부담 완화

영역별 생애 전망 ②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와 안전 의식: 외로움, 안전, 성역할 부담이 함께 작동

- 사회적 관계 관련 응답에서는 야간 이동 시 안전 불안의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 반면, 성역할 기대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여성과 남성이 유사하게 나타남.
- ‘최근 1개월간 외로움을 자주 느낌’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성 46.5%, 남성 37.0%로 여성의 응답 비율이 9.5%p 높았음. ‘야간 귀가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불안을 느낌’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성 59.1%, 남성 26.3%로 격차가 32.8%p에 달함. 반면 ‘성역할 기대 부담’의 응답 수준은 여성과 남성이 거의 유사해, 부담의 정도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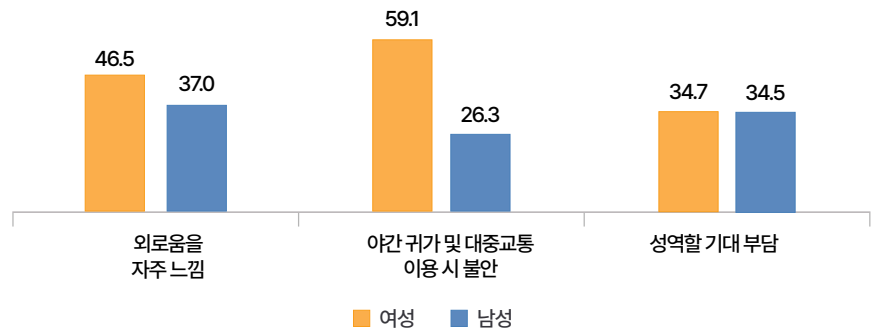


그림 9 사회적 관계 및 안전 인식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 사회적 관계 영역 수요와 정책 방향

- ‘성평등중시형’은 ‘야간 귀가·이동 불안’ 2.93점(4점 만점), ‘성역할 기대 부담’ 2.34점으로 다섯 유형 중 평균이 가장 높았음. 이는 해당 유형의 안전 우려와 관계 속 성역할 부담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한편 ‘역차별민감형’은 ‘공동체·관계망이 있다고 느낌’ 2.18점(4점 만점), ‘지역 도움 네트워크가 충분하다고 느낌’ 1.96점으로 다섯 유형 중 가장 낮았음.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고립 예방과 지역 관계망 형성이 정책의 주요 접점이 될 수 있음.

표 3 |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최근 1개월 간 외로움을 자주 느낌			서울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관계망이 있다고 느낌			지역(동네)에서 생활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충분하다고 느낌			야간에 귀가하거나 대중교통·택시를 이용할 때 불안함을 느낌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 때문에 부담을 느낌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성평등,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음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공정중시형 ^a	2.25	.87		2.52	.80		2.48	.78		2.06	.83		2.14	.82		2.66	.75	
성차별민감형 ^b	2.40	.95		2.57	.86		2.40	.84		2.52	.99	111.108	2.20	.87		2.73	.79	
성평등중시형 ^c	2.35	.98	20.546*** (d<a,b,c,e)	2.43	.88	8.415*** (e<a,b,c,d)	2.22	.80	19.524*** (e<b,c,d<a)	2.93	.89	*** (d<e<a<b<c)	2.34	.90	18.450*** (d<e<a<b,c)	2.64	.92	13.879*** (d,e<a,b,c)
차별둔감형 ^d	1.79	.91		2.41	1.02		2.30	.96		1.76	.86		1.76	.80		2.35	1.02	
역차별민감형 ^e	2.27	1.08		2.18	1.02		1.96	.90		1.78	1.03		1.99	1.04		2.36	1.08	

주 1) ***p<0.001

2) 통계량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3)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4) 사후분석 = Scheffé

영역별 생애 전망 ③ 가족 형성

가족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향과 실현 가능성의 차이

- 배우자가 없는 청년 응답자(2,331명)의 결혼 의향 및 계획을 살펴본 결과, '하고 싶고 가능'하다는 응답은 여성 35.5%, 남성 43.4%였으며, '하고 싶지 않음'은 여성 25.6%, 남성 12.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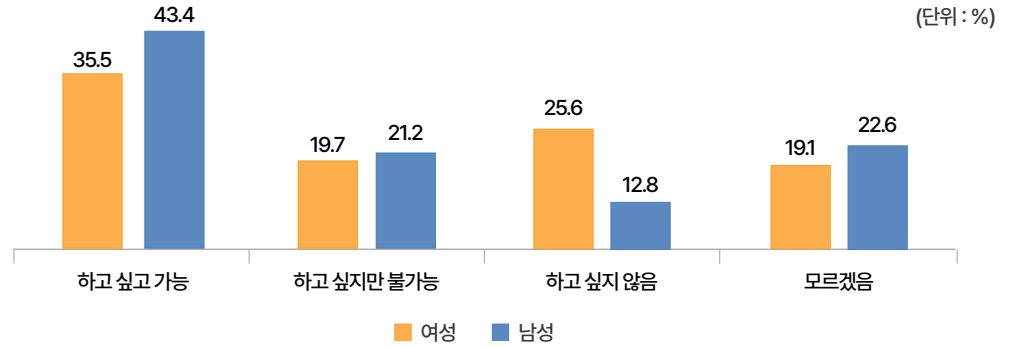


그림 10 결혼 의향 및 계획에서의 성별 차이

- 결혼 의향이나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934명)에게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라는 응답이 여성 51.8%, 남성 38.9%로 가장 많았음. 그다음으로는 '결혼 비용 부담'(여성 14.7%, 남성 23.9%), '고용상태 불안'(여성 9.5%, 남성 16.8%) 등 경제적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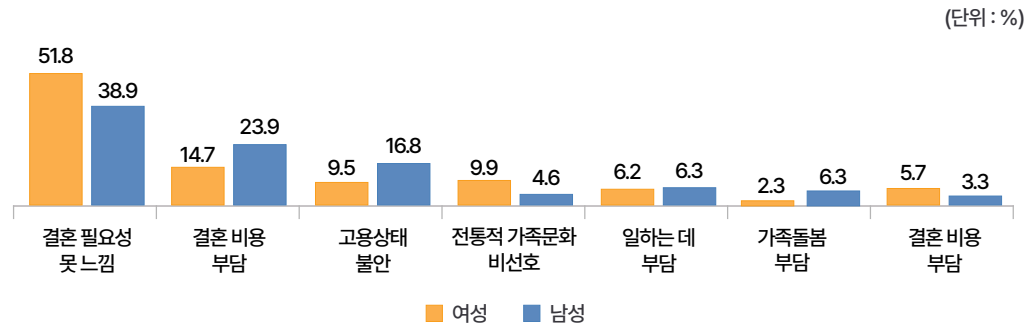


그림 11 결혼 의향 및 계획이 없는 이유(1순위)

- 출산·입양 의향 및 계획에서는 '하고 싶고 가능'하다는 응답이 여성 30.9%, 남성 43.4%였으며, '하고 싶지 않음'은 여성 32.3%, 남성 1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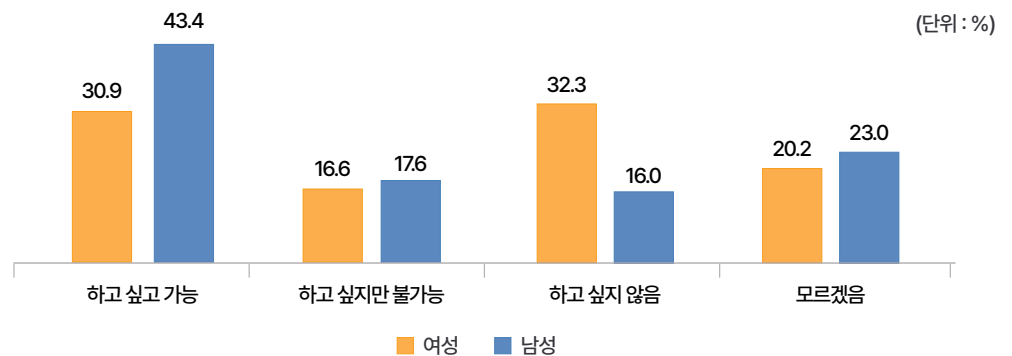


그림 12 출산·입양 의향 및 계획에서의 성별 차이

- 자녀 출산·입양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1,107명)에게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을 답한 비율이 여성 28.8%, 남성 47.2%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남성 응답 비율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여성 20.7%, 남성 16.9%),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여성 19.9%, 남성 14.0%) 등이 뒤를 이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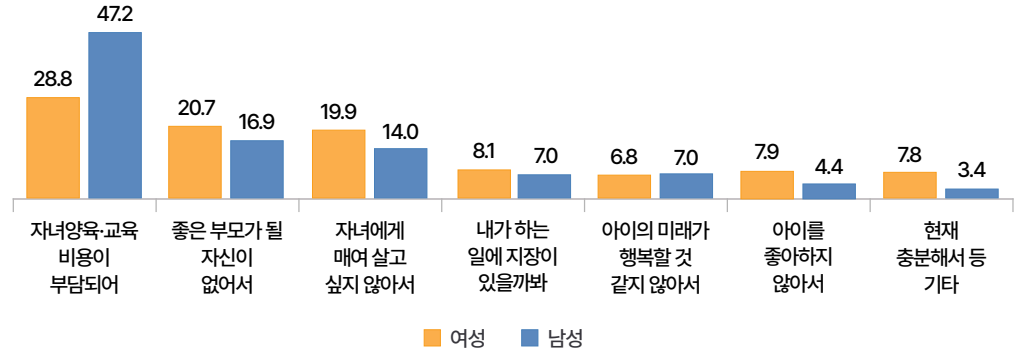


그림 13 출산·입양 의향 및 계획이 없는 이유(1순위)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출산에 관한 선택에서는 여성의 경우 경력 지속과 돌봄에 대한 우려가, 남성의 경우 결혼 비용·고용 불안·양육비 부담이 주요 고려 요인으로 나타남. 다만 이러한 경향은 집단별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평등중시형은 ‘결혼 의향 없음’(59.2%)과 ‘출산 의향 없음’(70.4%)의 비율이 높았으며(<표 4> 참조), 결혼·출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함. 반면 성차별민감형과 차별둔감형은 정책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표 5> 참조). 이는 가족 형성에 관한 개인의 의향과 정책의 관련성이 필요성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조사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음.

표 4 |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 결혼 및 출산 의향

(단위: 명, %)

구분	공정중시형	성차별민감형	성평등중시형	차별둔감형	역차별민감형	유의성 검정
결혼의향	있고 가능	434(58.0)	275(51.8)	57(19.9)	105(68.6)	276.182***
	있고 불가능	207(27.7)	134(25.2)	60(20.9)	32(20.9)	
	없음	107(14.3)	122(23.0)	170(59.2)	16(10.5)	
출산의향	있고 가능	457(54.5)	287(47.8)	45(14.3)	128(72.3)	343.689***
	있고 불가능	223(26.6)	120(20.0)	48(15.3)	25(14.1)	
	없음	159(19.0)	194(32.3)	221(70.4)	24(13.6)	

주 1) ***p<0.001

2) 통계량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3) 결혼 의향은 미혼/비혼, 사별 대상 응답한 문항이며, 이 중 ‘모르겠음’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4) 출산 의향은 모든 응답자가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모르겠음’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5 |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 결혼 및 출산 정책 평가

(단위: 점)

구분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임신이나 출산이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					
	정책 필요성			청년 삶에 도움 정도			정책 필요성			청년 삶에 도움 정도		
	m	sd	F	m	sd	F	m	sd	F	m	sd	F
공정중시형 ^a	3.09	.81		3.07	.86		3.19	.80		3.09	.86	
성차별민감형 ^b	3.16	.86		3.05	.91		3.27	.85		3.06	.94	
			52.975			58.816			53.106			58.721
			***			***			***			***
성평등중시형 ^c	2.42	1.00	(c<a,b,d,e)	2.29	1.02	(c<a,b,d,e)	2.51	1.10	(c<d,e<a,b)	2.29	1.09	(c<e<a,b,d)
차별둔감형 ^d	3.11	.87		3.07	.84		3.12	.86		3.06	.86	
역차별민감형 ^e	3.02	.99		2.86	1.00		2.98	1.09		2.82	1.05	

주 1) ***p<0.001

2) 통계량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3) 1(전혀 필요하지 않다) ~ 4(매우 필요하다), 1(전혀 도움이 안된다) ~ 4(매우 도움이 된다)

4) 사후분석 = Scheffé

생애 전망에서의 성별 차이: 불안정성은 공통된 과제이지만 경험하는 경로는 다름

불안정성에 대한 성별화된 경험과 대응

- 성*연령 집단별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생애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봄.
- 여성 19~24세 집단에서는 안전에 대한 요구, 구직 과정에서의 외모 평가 경험, 경력 유지에 대한 불안이 확인됨. 이에 따라 안전한 일상환경 조성, 디지털 시민성 강화, 성차별 없는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 요구됨.
- 남성 19~24세 집단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학업·취업 지연 문제가 주로 제기되어 군복무 이후 학업·경력 이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관계 형성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 25~29세 집단에서는 경력 지속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져 고용 안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남성 25~29세 집단에서는 데이트·결혼 비용과 주거 마련 부담이 나타나 주거·자산형성 지원과 성역할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성 30~34세 집단에서는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우려와 조직 내 성차별 경험이 나타남. 이에 따라 경력 지속을 지원하고 돌봄제도를 불이익 없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성 30~34세 집단에서는 결혼·양육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과 가족 부양 규범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 주거·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가족 내 역할 부담을 완화하는 접근이 요구됨.

표 6 성·연령 집단별 생애 전망 특성

구분	주요 특성	정책 초점
여성 19~24세	안전, 온라인 혐오, 구직과정 외모·복장 평가 경험, 경력 유지에 대한 불안	안전 요구 대응, 디지털 시민성 구축, 성차별 없는 노동시장 진입
남성 19~24세	군복무로 인한 학업·취업 지연, 공정성·역할 부담, 사회적 관계 유보	군복무 이후 경력 지원, 공정성 공론화, 관계망 지원
여성 25~29세	취업·독립과 결혼·출산을 현실 조건과 연결, 경력 지속과 안전 우려	경력 진입기 역량 강화, 안전한 주거 환경, 일·생활균형
남성 25~29세	데이트·결혼 비용 부담, 주택 마련, 취업 안정성 부담	주거 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 성역할 부담 완화, 보편적 돌봄권
여성 30~34세	휴직·돌봄휴가 불이익, 조직 내 성별 역할·승진 정체, 결혼·출산 유보	경력 지속·승진 공정성, 실질적 돌봄제도 이용 보장
남성 30~34세	주택 마련·생계부양 기대, 결혼 비용의 현실적 압박	주거 안정성, 가족부양 규범 완화, 남성 돌봄 참여

정책적 함의: ‘성별 맞춤’을 넘어 “생애 조건×인식 유형” 기반 설계

정책 원칙

-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공동 기반 강화: 청년 취업 확대, 고용·소득 안정, 공정채용, 일·생활균형, 안전한 주거·이동, 관계·안전, 돌봄 접근성을 기본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인식 유형별 정책 소통의 차별화: 성평등중시형과 성차별민감형에는 구조적 불평등 개선과 젠더폭력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공정중시형과 역차별민감형에는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성역할 부담 완화를, 차별둔감형에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인식 유형의 활용 범위 설정: 인식 유형은 정책 대상을 고정적으로 분류하거나 낙인찍는 기준이 아니라, 정책 설명 방식과 참여 경로를 설계할 때 참고하는 분석적 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가족 형성 의향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 결혼·출산 의향은 있지만 실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청년에게는 고용·주거·돌봄 상의 제약을 줄이고, 의향이 없는 청년에게는 비혼·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삶의 경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유형별 정책 접근 예시

- 공정중시형에는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명시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성차별민감형에는 차별 개선과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용함.
- 성평등중시형에는 정책 참여와 환류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생애경로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을 강조할 수 있음.

- 차별둔감형에는 안전한 일터와 관계 형성, 고립 예방, 도움 요청 이후의 문제 해결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역차별민감형에는 정책의 필요성, 적용 대상과 기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접근이 유용함.

표 7 양성평등 인식 유형별 정책 접근 예시

유형	접근 언어
공정중시형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명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 부담 완화
성차별민감형	차별 개선 성과와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시, 경력유지 지원
성평등중시형	정책 참여·환류 결과 공유, 다양한 생애경로와 선택권 제시
차별둔감형	안전한 일터·사회적 관계, 고립 예방, 도움 요청 이후 해결 등 생활 속 변화 제시
역차별민감형	왜 필요한가·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맺음말: 청년의 “생애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양성평등정책으로

- 서울시 청년의 생애 전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대립 구도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음. 동일한 성별 내부에서도 양성평등 인식 유형과 경제활동, 가족돌봄, 독립 여부, 결혼·출산 의향 및 실현 가능성에 따라 정책 요구가 달라짐.
- 따라서 청년을 향한 양성평등정책은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인식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위험과 역할 부담을 완화하며, 경제활동·가구형태·돌봄·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를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야 함.
- 이를 위해 생애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가 어떤 비용과 제약을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 공통적인 삶의 기반은 보편적으로 강화하되, 정책의 목적과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과 참여 경로는 인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음.
- 결혼·출산 정책 역시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보다 결혼·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이 고용·주거·관계·안전·돌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애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함.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고립·은둔, 안전, 돌봄 정책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다면 정책 체감도와 양성평등 효과를 함께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표 8 양성평등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방향	정책 초점
‘생애 선택 가능성’을 청년정책 성과로 설정	취업·주거·돌봄 사업의 개별 실적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독립할 수 있는 주거·안전·관계망이 결혼·비혼·출산·비출산 등 다양한 선택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성별화된 부담을 기존 청년사업 안에서 진단	여성의 경력·안전 부담과 남성의 학업·취업 이행 지연·주거 마련 부담을 별개 문제로 분리하기보다, 청년 일자리·주거·관계 정책의 대상 선정과 프로그램 설계에 함께 반영
삶의 조건별 ‘패키지형’ 지원 강화	가족돌봄 청년, 1인가구, 비경제활동 청년, 독립 계획이 없는 청년, 가족 형성 의향은 있으나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는 청년 등 삶의 조건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공정성과 양성평등을 연결하는 청년 소통체계 구축	정책의 성별 수혜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공정한 적용 기준을 청년이 직접 논의하는 공론장 마련

연구자 | 나성은 (양성평등안전사업본부 정책개발실 성주류화정책연구팀)
박예슬 (양성평등안전사업본부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연구팀)